

# 노인의 심리적, 물질적 요인과 우울감, 복합관계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양경희\*, 정문경\*\*

경북대학교물리치료과\*, 조선대학교사회복지과\*\*

##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Family Type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Mater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Kyung-Hee Yang\*, Mun-Gyung Jeong\*\*

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buk University\*

Dept. of Welfare, Chosu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보건에 관련하여 우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우울 및 자살방지를 위한 복합연구 개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조사는 서울, 경기, 전남 일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영향이 있었다. 둘째, 노인의 물질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우울감, 심리적요인, 물질적요인, 가족형태, 의료복지, 융복합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tial factors for depression with respect to mental health in the elderly and present the groups in order to develop intervention strategies with human for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suicid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eld interviews using a questionnaire targeting normal elderly above the age of 65 who did not use social welfare services living in Seoul, Gyonggi and Jeonnam. The data collected was analysed with the use of a frequency test,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subjects on their depression was significant. That is, Depending on your type of psychological factors of family influences the sense of difference of melancholy. Second, the influence of material factors of the subjects on their depression was significant depending on their family type. That is, the influence of material factors in the elderly on their depression differed depending on family type.

**Key Words** : depression, psychological factors, material factors, family type, Medical social, Convergence

Received 27 May 2015, Revised 28 June 2015

Accepted 20 July 2015

Corresponding Author: Mun-Gyung Jeong(Chosun University)

Email: grs003@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 1. 서론

산업화와 의료기술발전의 발달로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노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 변화는 사회구조 속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3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8.3%인 약 400만 명이었다(노병일, 2005).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인 730만 명을 초과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20.2%인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추계되어 본격적인 '초 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특히 20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는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의 정년퇴직, 실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지위가 하락되고 이로 인한 노인의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된다. 사회적 지지의 약화는 노인들을 상실감과 고독감에 빠지게 하고 만성질환과 노쇠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노인들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사회활동이 제한된 노인은 가정에서마저 고립되어 열등감, 고독감, 소외감에 시달리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우울을 포함한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빈곤, 영양불량, 노인 학대, 범죄의 희생양, 보호비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3].

한국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우울에 대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우울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노인우울증 환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 진료환자가 2003년 11만 340명으로 2000년(6만 366명)에 비해 82.8%나 늘었다고 보고되었다[4]. 우울한 노년은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고 자살의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서(조계화, 김경영, 2008) 더 더욱 사회복지의 주요 영역으로 관심을 받아야 한다. 2003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65세 이상 노인은 2,760명

으로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 명당 7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5].

우울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노인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사회적 관심이나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급속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식들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물질적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우울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들의 삶에 대한 질적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은 자신에 대한 건강이며, 자신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하다고 느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노인의 심리적·물질적 요인의 개념

심리적복지감은 생활전체에 대한 주관적 행복과 만족 또는 일종의 심리적인 요인과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6]. 심리적 복지감을 생활만족도나 개인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인지 판단 측면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였다[7]. 물질적 지지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물 즉 경제적 지지를 의미한다. 노년기의 물질적 지지의 대부분은 성인이 된 자녀와 생존한 배우자가 대부분 제공한다. 사람의 조력은 물질적 중재로서 지지의 자원이 된다[8]. 심리적 지지는 자연적인 조력체계와 더 공식적인 조력체계에 의해 제공된 정서적, 도구적 및 사회적 교제의 도움을 의미하며,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대인관계의 과정을 말한다[9].

Hendricks(2004)는 세 가지 형태로 심리적 지지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소속감 혹은 안정감을 가리킨다. 이에 많은 연구조사자들은 정서적 지지를 개인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

나 사회적 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등을 반영하는 항목들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물질적 지지로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이나, 물품, 노력봉사 등을 통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셋째, 정보 제공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지지이다[10]. 정보적 지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식적인 지지집단 속에서 주고받게 된다[11].

심리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사랑, 돌봄, 격려, 이해, 신뢰, 관심 등의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는 정서적 도움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서적 격려, 충고, 정보, 구체적 원조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9].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면을 평가하고 노인 우울증상에 따른 비교위험도를 파악하여 우울을 가진 노인들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노인의 우울개념 및 실태

우울이란 슬픔, 절망, 그리고 의기소침과 같은 느낌을 말하고, 개인이 신체적·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근심, 침울함, 무력감과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기분상태라고 하였으며, Battle(1978)은 인간의 정서적인 기분 변화로 심리적 탈진, 의기소침, 외로움, 초조감 등을 느끼는 정도를 우울이라 하였다[12].

노인은 대부분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율성을 잃고 의존하게 되며,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으로 심한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며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인지기능도 이전보다 저하되는 등 다양한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들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중 11.2%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자살이유는 건강32.7% 경제적 어려움 30.9%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15.3% 그리고 외로움이 10.3%였다. 실제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81.9명이고, 놀랍게도 75세 이상은 거의 두 배나 많은 10만 명당 160

명에 이르고 있다.

노인우울의 원인을 생물학적, 의학적 영역, 인구학적, 사회심리학적 특성에서 찾고 있고, 우울을 느끼는 정도는 성별, 배우자의 유무, 교육수준, 가정생활수준, 가족형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우울의 원인을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 2.3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가족형태에 따른 지지

가족은 심리적 사회적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서 많은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강한 사회적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안정감 자존감이 형성한다[13,14]. 가족형태는 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와 노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5]. 노령화될수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을 가족을 통해 얻으므로 노인에게 대한 가족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16]. 그러므로 노인의 삶에서 가족형태 및 세대 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구 형태는 노인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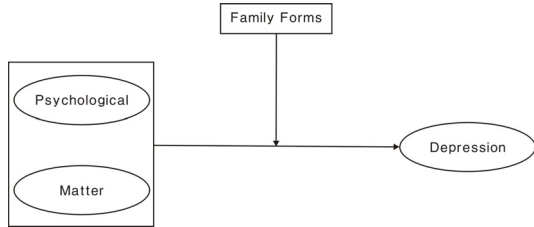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 사상을 인간의 기본윤리로 여겨, 자녀가 노인의 부양을 전담하였으며 가족주의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노인이 된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고[17], 노인들도 노인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 수준은 노인의 가구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8].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설정

가족은 심리적 사회적 부양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가족 구성원에서 많은 영향을 주며 개인에게 강한 사회적지지 체계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인간은 안정감 자존감이 형성한다[13,14]. 가족형태는 노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와 노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9]. 노령화될수

록 사회적 지지의 대부분을 가족을 통해 얻으므로 노인  
에 대한 가족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16]. 그러므로 노인  
의 삶에서 가족형태 및 세대 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구  
형태는 노인 개인의 생활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노인의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우울  
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연구의 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을 설정하였고,  
조절변수로 가족형태, 종속변수로는 우울감을 설정하였다.

[Fig. 1] 연구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 가설 1.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노인의 심리적 요인과 우울감의 관계는 가  
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노인의 물질적 요인과 우울감의 관계는 가  
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 연구결과

### 4.1 표본자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de		frequency (n)	percentage (%)
sex	male	123	41.0
	female	177	59.0

family type	couple	125	41.7
	living alone, children and other members	175	58.3
age	below 60-70	92	30.7
	below 70-75	96	32.0
	below 75-80	56	18.7
	above 80	56	18.7
education	uneducated	75	25.0
	elementary school graduate (including village school)	115	38.3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s	68	22.7
	high school graduates	40	13.3
	university graduates	2	.7
monthly income (kw)	nothing	79	26.3
	below 500,000	135	45.0
	510,000-800,000	52	17.3
	810,000-1000,000	4	1.3
	1,010,000-1,200,000	6	2.0
	1,210,000-1,500,000	11	3.7
	1,510,000-1,700,000	8	2.7
1,710,000-2,000,000	2	.7	
above 2,010,000	3	1.0	

### 4.2 타당도분석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  
여 독립변수 2개요인과 종속변수 1개의 요인을 확인하였  
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  
에 의한 요인 적재 값을 산출하여 요인적재 값을 표시하  
였다.

독립변수인 심리적 요인은 5개 설문항목과 물질적 요  
인은 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우울감  
은 7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Meyer  
-Olkin): .808,  $\chi^2$ : 2148.699, df는 12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6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 4.3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심리적 요인 .850, 물질적 요인  
.67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716으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alpha$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4.4 측정도구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도구를 분석하였다. 첫째, 변수들의 타당도를 분석하  
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항목들의 신  
뢰도 측정을 위해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

한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들이 측정하려고 의도하였던 개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4.4.1 타당도분석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독립변수 2개요인과 종속변수 1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 값을 산출하여<Table 2>는 요인적재 값을 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심리적 요인은 5개 설문항목과 물질적 요인은 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7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Meyer-Olkin): .808,  $\chi^2$ : 2148.699, df는 120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 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Matrix of Factor Loadings

variables	factor	factor value	eigen value	dispersio nrate	dispersion loadings
psychological	v1	.668	3.361	21.009	21.009
	v2	.823			
	v3	.870			
	v4	.776			
	v5	.775			
material	v6	.714	2.068	12.928	33.937
	v7	.595			
	v8	.786			
	v9	.726			
	v10	.757			
	v11	.768			
depression	v12	.634	4.027	25.170	59.107
	v13	.629			
	v14	.820			
	v15	.750			
	v16	.789			

KMO(Kaiser-Meyer-Olkin) : .808,  $\chi^2$  : 2148.699  
df : 120, significance probability: : 0.000

#### 4.4.2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Table3 >에서와 같이 심리적 요인 .850, 물질적 요인 .67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우울감은 .716으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alpha$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Reliability in Variable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h -Alpha	questions removed	
independent	linguistic praise	5	.850	nothing
	Physical praise	4	.679	nothing
subordinate	self-esteem	7	.716	nothing

### 4.3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대한 주요 변수들의 관계, 즉 노인의 심리적 요인 및 물질적 요인과의 우울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 가족현태가 조절변수로서 이들 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가설검증에 앞서 제 변수 간의 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고, 연구모형과 가설에 대한 구성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AMOS 22.0을 통해 검증하였다.

#### 4.3.1 변수별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 구성개념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심리적 요인 및 물질적 요인과 우울감 등 3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erson상관계수는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 $r=-.240$ ), 심리적 요인과 우울감( $r=-.214$ )이며, 물질적 요인과 우울감( $r=-.295$ )으로 나타났다.

#### 4.3.2 연구모형검증

본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전반적인 부합도 (Overall model fit) 지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값 471.654, 자유도(df) 101,  $\chi^2$ 에 대한  $p$  값 0.000으로 나타났고,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 4.4 연구가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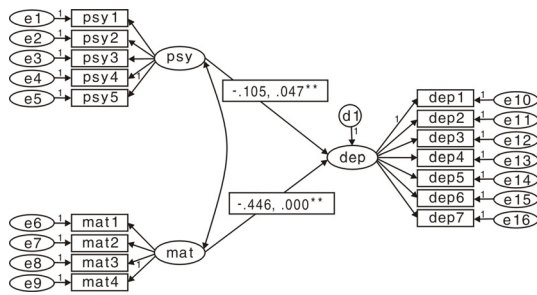
노인의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우울감(표준화계수  $-.105$ ,  $p$ 값  $.047$ )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우울감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우울감(표준화계수  $-.446$ ,  $p$ 값  $.000$ )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에 대한 우울감의 연구결과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물질적 요인은 심리적 요인에 비하여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Fig. 2] 와 같다.



[Fig. 2] Verification results

#### 4.5 가족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분석

노인의 심리적 요인과 물질적 요인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관계에서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3과 4에 대한 조절효과분석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심리적 요인이 우울감(표준화계수 : 부부  $-.170$ , 가족  $-.479$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가족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15.026$ 이며,  $p$ 값은  $.000$ 으로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노인의 심리적 요인은 가족형태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 보다는 독거이거나 자녀 또는 기타 가족과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울감이 더 낮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물질적 요인이 우울감(표준화계수 :

부부  $-.424$ , 가족  $-.057$ )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가족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약모형의  $\Delta\chi^2$  값이  $12.399$ 이며,  $p$ 값은  $.000$ 으로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노인의 물질적 요인은 가족형태에서 부부가 함께 있는 경우 보다는 독거이거나 자녀 또는 기타 가족과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울감이 더 낮게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 응답한 노인들의 심리적, 물질적 요인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물질적 요인은 노인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분석 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요인 약화는 노인우울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심리적, 물질적 요인이 약하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우울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많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들 가운데 가족형태에 따라서 노인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몇 가지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노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심리적, 물질적 지지와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족형태에 따라서 노인의 우울에 영향이 있음이 밝혀졌고 노인에 있어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건강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와 가족가치관이 변화하였으나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건강 수준과 생활환경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에 있어 가족형태에서 발생하는 지지란 다른 어떠한 사회적 지지보다 강력하고 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지원으로 노인의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효과를 보완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의 행위를 격려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표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

입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한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에 증대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앞의 연구결과에서 노인의 가족형태는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고 독거노인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 등과 같은 가구형태의 변화가 건강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들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복지적 사회재활서비스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삶에 있어 심리적 환경에 집중하여 연구되어졌다면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건강과 관련된 정서적 측면 연구도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Data from Statistics Korea. 2004.
- [2] No, Byong-II,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and Dealing with Depression Caused by Stress in the Elderly", 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05.
- [3] Kim, Tae-Hyon, "A Comparative Culture Study on Family Cohesion, Fideli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Targeting Korean Senior Citizens and Korean Senior Citizens Living in the U.S.A." Korea Gerontology Vol. 19, No. 2, pp. 79-96, 1999.
- [4] The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 Jungangilbo, May 20, 2005.
- [5] Jo Gye Hwa· Kim, Gyong-Young, "Influential Factors of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2, pp. 176-187, 2008.
- [6] Berkman, L. F. Which influences cognitive function: Living alone or being alone? Lancet, 355, 2000.
- [7] Hong, Joo-Woo,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 the Elderly on Their Mental Health" a master's thesis, Lee Hwa Women's University. 1999.
- [8] Lee, Jong-Bum·Jeong, Sung-Duk. "A Study on Anxiety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Neuro-Psychiatry, Vol. 24, No. 3, pp. 431-444, 1985.
- [9] Jang, Gyeong-Hee, "A Study on Social Networks in the Elderly", Korea Gerontology 15. 1995.
- [10] Hendricks, J. Exchangetheoryinaging. The Encyclipediaofaging. N.Y.:Springer, 1987.
- [11] Park, Chung-Sun, "A Study on Living Time and Life Satisfaction at Old Ag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18, No. 2, 1998.
- [12] Lee, Jong-Bum · Seo, Hye-Soo · Jeong, Sung-Duk, ".A Study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Korea Gerontology 4. 1994.
- [13] Berkman, L. F. Which influences cognitive function: Living alone or being alone? Lancet, 355, 2000.
- [14] Song, Ye-Hu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Perceived by the Elderly, their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0, No. 1, pp. 473-483, 2001.
- [15] Choi, Gyu-Ryon, "A study on Marriag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the Couple Both Working; Centering on Couples Both Working with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92, pp. 61-84, 1993.
- [16]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pp. 300-314, 1976.
- [17] Jeong, Soon-Dol, "The Influential Factors of Depression: Comparison between Babybommers, Preliminary Senior Citizens, and Present Senior Citizens" Senior Citizen Welfare Research, 52: pp. 305-324, 2011.
- [18] Choi, Sung-Jae & Jang, In-Hyop, "Gerontological Welfare in Ageing Socie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2010.
- [19] No, Byong-II,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and Dealing with Depression Caused by Stress in the Elderly", 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05.

### 양 경 희(Yang, Kyung Hee)



- 1981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 전문학사
- 1993년 8월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병원행정)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지체부자유아전공) 박사수료
- 2011년 2월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의료복지, 보건,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 E-Mail : khyang@kbu.ac.kr

### 정 문 경(Jeong, Mun Gyung)



- 1995년 2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사
- 2010년 2월 : 조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8월 : 조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통계, 분석, 사회심리, 아동심리, 가족복지
- E-Mail : grs003@naver.com